

출애굽기 1

주제: 거룩한 백성/제사장 나라

개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해방시키신 이야기이다.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째 부분은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내용이고 (출 1-18 장), 둘째 부분은 그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 내용이며 (출 19-24 장), 셋째 부분은 성막을 주시는 내용이다 (출 25-40 장)

I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 (출 1-18 장)

장과 주제	사실(Fact)	의미(Meaning)	적용(Application)
1 장 애굽의 노예생활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 중 (창 12:2)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애굽에서 주셨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는 것을 언제 느껴보았는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핍박을 가했다	고통이 없으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잊게 된다	나는 세상 재미에 취해 있다가 천국을 잊은 적은 없는가?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갓 태어난 남자 아이를 살렸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	우리 집안이 흥왕하게 되는 비결을 알고 있는가?
2-6 장 모세를 부르심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웠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모험이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찬송을 눈물로 불러본적이 있는가?
	호렘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쓸모없는 나무가 특별한 나무가 된다.	나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어떠했는가?

F.M.A 성경공부

	모세를 부르신 분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 (3:14)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 살아 계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은 누구인가?
7-11 장 열 가지 재앙	열 가지 재앙은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이다.	열 가지 재앙은 무능한 애굽의 거짓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다.	나는 지를 상징하는 애굽과 확실히 결별하고 사는가?
	열 가지 재앙 중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지에 임하지 않았다.	심판의 날의 두 가지 특징은 악인의 재앙과 의인의 구원이다.	고린도전서 15:58 말씀은 심판의 날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12-13 장 유월절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 어린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다.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을 얻는다.	성만찬을 대할 때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 죄에 대한 회개, 새로운 삶의 결단이 있는가?
	유월절 후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구원 얻은 자는 급히 죄악에서 떠나야 한다.	죄의 유혹에 대한 나의 자세는 어떠한가?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길 없는 광야길의 인도자가 되신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따라가는가? (말씀, 성령)
14-15 장 홍해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는 바로의 군대, 양 좌우편에는 암벽,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 원망하기보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고난의 때에 나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가? 아니면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다.	하나님은 죽음의 바다에 생명의 길을 여신다. (십자가의 구원)	죄의 노예라는 정체성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남의 감격이 있는가?

F.M.A 성경공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인간의 송축이다.	내가 즐겨 부르는 구원 찬송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16-18 장 시내산 여정	마라의 쓴 물을 달게하셨다 (15:22-26)	쓴 물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나무를 넣으면 단물이 된다.	쓴 물과 같은 나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신 은혜의 생수가 있는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다.	광야는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배우는 곳이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인가?
	아말렉을 (신 25:17-18) 이기는 길은 모세처럼 손을 들어야 한다.	아말렉은 피곤한 자와 뒤에 처진 자를 공격한다 (신 25:17-18).	기도가 생명이다. 아론과 훌처럼 함께 기도의 손을 잡아 줄 사람은 누구인가?